### 데스크시각



김미은 문화부장

작가 박지현 씨는 2년여 전 광주 산수 동골목길에 살고 있는 어른들을 자주 찾 아뵈었다. 박 작가가 동네 노인들에게 커피를 '쏠' 때마다 허리가 90도로 굽은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는, 가게에서 파는 300원짜리 커피를 한 가족 같은 옆집 할 머니들에게 배달하곤 했다. 그리곤 함께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론 삼겹살 파티도 열었다.

동네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 전, 박 작 가는 우연히 좁디좁은 산수동 골목길을 찾았었다. 경사진 길을 따라 노을이 지 는 모습이 너무 예뻐 한참을 서 있었다. 꼭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 오 래된 풍경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골목집들이 모두 사라질 거라 는 소식을 들었다. 재개발이 확정돼 대규 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이었다. 마음이 급해진 박 작가는 임창진 사진작 가와 함께 6개월간 거의 매일 골목길을 찾았다. 영상을 촬영하는 지인도 합류했 다. "오랜된 삶의 풍경들이 그대로 사라 져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기록으로 남겨 두자"는 마음이었다. 주민들의 생생

#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

한 사연, 집이 허물어지는 모습, 이사 가 는 날 풍경 등이 사진과 영상과 글로 남 았다. 부유한 삶은 아니지만, 끈끈한 정 으로 엮인 그들의 삶은 따뜻했다. '골목 사람들'은 동네 아이들을 함께 키웠다. 그 덕분에 맞벌이 부부들은 맘 편히 일을 할 수 있었다.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슈퍼 할머니의 남편을 함께 보살핀 것도 바로 골목 사람들이었다.

박 작가는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수없 이 기운 속바지를 비롯해 앨범・그릇 등 동네 사람들이 이사 가며 버려두고 간 물 건들을 하나둘 모았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산수동 골목길 사람들의 삶'을 보 여 줄 수 있는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 흔적 없이 사라진 옛 조흥은행

충장로 5가에 자리한 옛 조흥은행(신 한은행) 건물은 충장로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었다. 최근 오랜만에 이곳을 찾은 이들은 깜짝 놀랐을지 모른다. 조흥은행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 이다. 박선홍 선생의 '광주 100년'에 따 르면 조흥은행 건물은 1943년 현재의 자 리에 처음 문을 열었다, 우리가 알고 있 던 현재 사옥은 지난 1962년 신축된 건 물로 목재 대신 유리와 벽돌, 철제 구조 등을 활용한 광주의 대표적 근대식 건물 이다. 한때 광주시와 동구청 등이 매입

을 타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한 건설업체 에 매각됐고 지난 3월 건물이 헐리면서 지취를 감춰 버렸다. 대신 이곳에는 고 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며칠 전 광주·전남 건축가회 주최로 영화 '콜럼버스' 상영회와 세미나가 광 주극장에서 열렸다. 치유의 건축을 이야 기하는 영화의 배경이 된 미국 인디애나 주 콜럼버스는 인구 4만 명에 불과한 작 은 도시지만 '세계 모더니즘 건축의 메 카'로 불리는 곳이다. 건축과 주민의 삶 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업가, 건 축가, 행정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필 영 화가 상영된 곳이 조흥은행에서 50m 떨 어진 광주극장이다 보니 왠지 '우리의 민낯'을 보는 듯해 씁쓸해졌다. 광주극 장에도 건물 매각을 문의하는 전화가 자 주 온다는 말에 한숨이 더해졌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홍근 회장은 안 타까운 마음이 더했다. 오래전부터 이 건물의 운명에 관심을 가져 온 그는 결국 자치단체에서 매입이 어렵다면, 건물의 역사만이라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뜻이 맞는 이들과 건물을 기억하고,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진행해 야지 싶었는데 잠시 미루는 사이, 건물 은 순식간에 헐리고 말았다. 그는 지금 부터라도 광주의 미래 유산이 될 광주 근 대 건축물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 광주에 오래된 공간 많았으면

도시 재생 사업이 화두가 된 지 오래 다. 문재인 정부 역시 도시 재생 뉴딜 사 업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 2022년까 지 지역특화 재생 100곳 등 총 250곳의 지역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 지만 도시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데 는 항상 보존과 개발 논리가 부딪친다. 도시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건물이나 공 간, 그리고 오래된 가게들은 보존하고 미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게 최선일 것 이다. 그게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그 역 사와 흔적만이라도 기록하는 작업이 꼭 이뤄져야 한다. 어떤 기록도 남기지 못 한 채 사라져 버린다면 언젠가는 예전의 광주를 '상상'해 보는 것조차 어려워질 지 모른다. 2주 후면 새로운 자지단체장 이 선출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기 대해 볼 수 있을까?

동명동을 지날 때면 꼭 멀리서나마 지 켜보는 가게가 있다. 1965년 문을 연, 81세의 신영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시 계 수리점 '용문당'이다. 며칠 전 여전히 안경을 끼고 시계 수리에 열중인 할아버 지를 유리창 밖에서 바라보노라니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드는 것이었다. 광주에 이런 오래된 공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社 說

## 5·18진상규명위 조사 권한 강화 당연하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 시 행령 제정 공청회가 그제 오후 국회 의 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 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당 연하고도 절실한 주장이다. 지난 2월 '5·18 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매우 부 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광주전남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5. 18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 규명의 실효성 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이고, 이는 진상규 명위의 조사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며 "특별법에는 조사 권한의 강제성을 확 보할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일부 있 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진상규명

위에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적 증거 출석 확보 방안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과 물적 증거 확보 방안(압수수색 요청 권한) 그 리고 위원회 정원 규정 삭제 등을 담은 특 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5·18의 진상 규명을 위 해 적극 협조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 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며, 광주 현지에 진 상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 설립 조항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의 견도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 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공동 주최했기 때 문에 이들 국회의원들이 5·18 진상 규명 을 위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 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5.18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살려 내야 할 것이다.

### 또 터진 기아차 채용 사기 근절 대책 없나

기아자동차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 아 챙기는 취업 사기 사건이 또다시 터졌 다. 피의자는 모 자치단체 고위 간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채용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건의 파장 이 어디까지 퍼질지 주목된다.

함평 경찰은 대기업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구직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 어낸 혐의(사기)로 골프 강사 A씨를 조 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1억 원을 주면 기아차 사무직, 5000만 원을 주면 생산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3명으로 부터 각각 3000만~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속아 9000여만 원을 건넨 B씨는 실제 채용이 되지 않자 최근 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 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모 자치단체 고위 간부를 통해 기아차에 들어가도록 해 주 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한다. 경 찰이 최근 이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 야 할 것이다.

사한 결과 A씨와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A씨와 만난 적은 있으나 이번 취업 사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 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채용을 둘러싼 사기와 비리는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1월 에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전 간부가 수 억 원 대 취업 사기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2004년엔 노조 간부와 직원 등 130여 명이 연루된 대규모 채용 비리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대기업인 기아차 직원은 구직자들에게 는 선망의 대상이다. 지역 내 청년 일자 리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 도 붙잡는 심정으로 채용 청탁을 하고 이 를 악용해 돈을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되 고 있는 것이다. 과거 투명하지 못했던 채용 과정도 이에 한몫을 하고 있다. 청 년들을 두 번 울리는 취업 사기를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적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

#### 은펜칼럼



시인

화순 춘양에 들어와 산 지 벌써 4년이 나 됐다. 이 마을에는 89세의 할아버지 가 살고 계신다. 그 분은 젊은 시절 강원 도 산골까지 다니시면서 벌꿀을 쳤다.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 농사도 잘 지으 셨다. 이곳에 처음 들어 왔을 때 동네 분 들을 잘 모시겠다는 다짐으로 '참나무 집 아무개'라고 인쇄된 수건을 한 장씩 돌렸는데 그 영감님은 그 후 나만 보면 "어이, 고씨!"라고 부르셨다. 이미 건방 져버린 내 심보로 그 호칭을 감내하기가 어려웠지만 어쩔 방법이 없어 세월이 가 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 하며 얼굴로만 웃었다.

그렇지만 소용없었다. 지금까지도 내 이름은 "고씨!"이다. 이제는 나도 내 삶 의 진실을 간파했으므로 마음이 편안하 다. 작년 늦가을이었다. 석양 무렵 영감 님이 건너편 빈 집 마당에 서서 "어이, 고씨!" 라며 큰소리로 부르셨다. 나는

#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세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갔는데 그런 내 모 습을 본 영감님은 마당에 흩어져 있는 은행 알을 주워 담을 수 있도록 양푼을 들고 오라고 호통을 쳤다. 그만큼 활달 하셨다는 얘기다. 초겨울까지도 영감님 은 검정 털모자를 두르고 씩씩하게 고샅 을 걸어 다니셨다.

그런데 봄을 앞둔 어느 날 깜짝 놀랐 다. 앞산은 분홍빛 진달래로 붉게 물들 어 있는데 영감님은 믿을 수 없도록 쇠 약해져 있었다. 한 계절을 보냈을 뿐인 데 그처럼 진기가 빠질 수 있다니, 마치 빈 집 같았다. 풀과 대나무가 지붕을 뚫 고 나온, 대들보와 서까래가 검게 썩어 형체를 잃어가고, 마당에는 무성한 잡 풀만 자라고 있는 묵은 집 같은. 그 집의 담장은 허물어져 흔적만 남아 있었으니 나는 그 순간 삶의 덧없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삶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노년의 느린 삶에 시간은 쓸 데 없이 얼마나 분주한 것인가….

또 한 분 나주반의 주인이 있다. 2015년 봄부터 그분으로부터 목공예를 배우면서 목물을 만들고 있다. 나주반 은 화려하지 않고 투박하면서도 실용적 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우리나라에 는 '나주반', '해주반', '통영반' 등 3대 소반이 있다.) 그 분은 나주반의 성격 대로 투박하고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이 다. 그 분도 역시 경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듯하다. 외로움을 불쑥불쑥 내비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 며 존경해도 나이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상처가 있으니 바로 노년의 현실-삶과 죽음의 경계를 들여다보는 일-이 아닌 가 싶다. 경계에 익숙해지기까지 얼마 나 많은 힘듦이 있을까 생각하니 아득해 진다. 지난 3년 반 동안 영감님은 힘겹 게 병들을 다스려 오셨다. 고관절, 폐 렴, 척추 이상, 해소와 천식. 그밖에 알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들도 있었을 것이 니 지난 몇 년은 실망의 연속이었을 것 이 분명하다.

그분의 마음 속 얘기를 들은 적이 있 다. "일을 하고 싶어 죽것다."고 하셨 다. 하지만 일을 하면 아드님이 가만두 지를 않았다. 평생 일손을 놓지 못한 분 의 일에 대한 욕구와 그 일을 하면 반드 시 고통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아는 아 들의 생각이 부딪친 때문일 것이다. 영 감님은 병과 친구 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돈은 필요 없는 것이라 고도했다. '문화재'로서의 명예를 지키 기 위해 감내했던 경제적 고충을 얘기 할 때는 신념과 현실의 갈등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노인의, 천식을 앓는 거친 호 흡과 마디 굵은 주름살을 보며 연민이 색처럼 솟았다.

그것은 무지근하게 마음을 눌렀고 급 기야 언젠가 다다라야 하는 우리의 종점 을 생각하게 했다. 넌지시 삶의 덧없음 을 뇌까렸더니 나주반은 아홉 번의 옻칠 을 해야 완성된다면서 "'덧없음의 깨달 음'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옻칠이 아닐 까?"라고 되물으셨다. 무릎을 쳤다. 덧 없음이란 소멸과 상실에 대한 허무감이 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인정하므 로써 얻는 자기 갱신일 것이다. 갱신은 만족스런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삶의 원형이다.

곧 다가올 선거의 입후보자들께 범박 하나마 이 덧없음의 교훈을 꼭 전하고 싶다. 다행스럽게도 두 분 노인장들께 서는 새봄을 맞아 건강해지셨다. 두 분 을 일으켜 세워준 푸르른 신록의 선처가 너무나 감사하다.

## 無等鼓 👀

'신(新)북풍'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 (北風)이 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 북풍이란 과거 군 사·보수 정권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위 협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을 뜻한 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0년 기간을 제외하고 북풍은 선거 때마다 또는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불었다.

남북 분단 상황을 이용해 보수 정당은 북풍을 직 간접적으로 이용한 일도 적지 않았으며 따라서 공작 논란으로 이어지 기도 했다. 이는 안보 불안이 심화될수록 민감한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결집할 수 있다 는 선거 전략 때문이 다. 남북 북단이라는 현

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현실이기도 하다.

과거 대표적인 북풍 사례로는 1987년 과 1992년 13대·14대 대선을 앞두고 일 어난 '평화의 댐 건설', 'KAL기 폭파 사 건', '이선실 간첩 사건'이 꼽힌다. 당시 보수 정당 소속이던 노태우·김영삼 후보 가 당선되면서 북풍의 위력이 주목을 받 았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북풍을 항상 우려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보수 정당이 '북풍'을 말하며 여당 을 공격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 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성된 평화 체제 구 축 분위기를 야당이 '북풍'으로 몰아가면서 '신(新)북풍'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것 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아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위장 평화 쇼' '생쇼'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홍 대표 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연일 맹렬하 게 비난하고 나선 배경에는 한반도 평화 체 제 구축으로 보수 정권이 설 자리를 잃을 수있다는위기감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선거가 남

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의 대형 이슈에 묻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 만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제1야 당이 시대착오적인 북풍 변수를 이용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지방선거 가 1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 도 각 후보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년 실업 해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 활 밀착형 공약 등을 이슈로 다루면서 유 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길 기대해 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기 고



송재빈 광주북부소방서 구급담당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일 이순 신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다면 과연 성공 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순신은 혁명의 성공과 함께 조선은 멸망했고, 새로운 이순신의 나라가 세워졌을 거라 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다. 무 력과 민심을 가진 군인이었다. 두 가지 모두 선조에게는 없거나 그를 압도하는 덕목이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이 시 작되자마자 도망 다니기에 바빴던 당시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이순신을 항상 두 려워하여 어떻게든 죽이려 하였다.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거두자 그가 명 나라로부터 벼슬을 받았다는 소문이 떠 돌았다. 이순신 본인도 들었다. 문제는 사실 여부가 아니다. 그 소문을 선조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군인

# 그는 왜 혁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순신은 철저하게 무너졌다. 계급장을 떼이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계급도 없이 전투에 투입되고 전쟁터에 서 죽었다. 그가 겪은 정신적 수모와 육 체적 고통은 끔찍하다. 의문이 생긴다. 모두가 전쟁의 신이라 추앙하였으며 그 또한 인간이었다. 왜 항명을 하지 않았 을까. 나라는 어지럽고 민심도 군사도 그의 편이었는데도 말이다.

만일 이순신이 혁명을 일으키고 명나 라가 이순신을 도와줘서 성공했다고 하 면, 낭떠러지에 몰린 조선 왕 선조와 조 정 대신들이 뜻밖에도 일본과 손을 잡고 비밀 협약을 했다면 과연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순신은 너무나도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기를 정확히 알았던 것이 아닐까? 이순신은 충성된 군인이었다. '사직의 위엄과 영험에 힘 입어 겨우 조그만 공로를 세웠는데 임금 의 총애와 영광이 너무 커서 분에 넘친 다.'(난중일기 1595년 5월 29일)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사 반란 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상관을 불법 연행 체포하는 하극상의 쿠테타, 진실을 밝히 고 사죄를 하기보다는 진실을 감추고 왜 곡하는 무리들, 감추는 자와 진실을 밝 히려는 자 사이에 38년간 전쟁은 계속되 고 있다. 진실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조선 14대 국왕 선조는 유능한 인물 이었다.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정읍 현감 이순신을 7계급 특진시켜 전라좌 수사로 임명한 지도자였다. 판단이 빠 르고 각료들과 함께 전쟁 상황을 토론하 는 전술가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기적 이었다.

이순신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인 지도 자였다. 그는 철저했던 관료주의 조직 하에서도 장병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용했다. 경상도로 가는 첫 출진 때에 는 진해루에서 군사 토론을 거쳐 전쟁터 로 나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케함으로써 민주 제도인 토론을 활성화시켰다. 전쟁 을 승리하기 위해 모든 부하의 두뇌를 집 중시켰다. 통제사로 한산도에 진을 치고 있을 때도 운주당을 항상 열어놓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장병들의 유익한 의견 을 두루 수용했던 것이다. 오늘날 워크 숍을 이미 그는 그때 활용하고 있었다.

조선 해군총사령관이 전쟁 최전방에 서 파면됐다. 이순신은 거의 죽을 만큼 고문을 받고 백의종군 끝에 복직 명령을 받았다. 조선 조정은 너무 미안했는지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들어가 적과 싸 우라고 했다. 이때 이순신은 천하의 명 언을 남긴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비록 전선이야 적지 만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조국이 여러분 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 보십시오'로 끝나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이순신 장군은 케 네디보다 무려 400년 앞서 조국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도 않 았고, 그가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 인가를 몸소 실천으로 옮겼던 것이다.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잡히 는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충무공의 모습, 그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다.

#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제 부 220-0663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부 220-0632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월정 10,000원 1부 500원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